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곧 있으면 수능... 방역대응 총력

전북도-시·군-교육청
비상대응체계 구축키로
선별진료소, 수능 전일
17일 오후 10시까지 운영
확진자 별도 고사장 마련

도교육청, 수능 일정 발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북도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비상대응체계 구축, 감염병전담병원 내 고사장 마련 등 빈틈없는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수험생도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교육청 시·군·도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방 등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확진 수험생에 대한 관리와 응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능 응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에 별도 고사장도 마련했고, 현장 확인까지 완료했다.

수능 전날 유증상 수험생이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로 통보 될 경우,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를 위해 수능 전날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험생 검체를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송하진 도지사는 2022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 환자관리반과 시·군 보건소에 통보한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교육청에 알려 해당 수험생이 별도 고사장에서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확진자 발생 시 시험장까지 이송은 소방본부에서 담당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수험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측에 수험생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능 전까지 실내체육행사, 특별활동 등을 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교습소를 교육청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특별 점검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고

자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확진 및 자가격리된 수험생의 안전한 수능 응시와 일반 수험생의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도민들께서도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1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일정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16일 평가원 지정 장소에서 도교육청 문답지 인수관 및 수능 담당자, 호송 경찰 등 총 52명이

수능 문답지를 인수한다.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이다. 도내 1만7,280명이 출신 고등학교에서 수험표 배부, 수험생 유의사항 전달 시험장 안내 등이 진행된다. 다만, 개별 접수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다.

18일에는 64개교에서 일제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별도 시험장 4기관 병원 시험장 17기관에서도 실시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하며, 특히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를 위해 20시 25분 시험이 종료된다.

한편, 수능 당일 시험장 앞에서 학부모 대기 및 응원은 금지된다.

/유호상기자·장은성기자

전주, 거대한 변혁 통해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 전주시장 출마 선언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라는 깃발을 들고, 내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전주 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 전 부지사는 15일 오전 11시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전주는 조선왕조 500년



우범기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15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장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통하며 전주의 호변, 큰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우 전 부지사는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크게 혁신해야 한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먼저 '강한 경제,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각영이 있던 전라도의 수도였으며, 드넓은 호남평야에 나라의 운명을 기대해야 했다"고 하면서 "지금의 전주는 전국 20대 도시로 밀려나 있고, 저녁 8시면 불이 꺼지는 등 좀처럼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 쓸 곳이 많은 전주, 일자리가 넘치는 전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면서 "광주부시장 시절 광주형일지리를 태동하게 했고, 부지사 재임시에는 군산형일지리 지정을 이끌어냈던 우범기가 나섰다"고 하면서 "이제 대박은 전주형일지리를 만들어 청년이 물려드는 전주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새만금공항 예산 요구는 90억원이었으나 기재부에서 200억원을 반영토록 하는 등 전북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던 것도 기재부 출신 우범기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예산이 없어 할 일을 못했던 전주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어 "전주의 변화는 시장 혼자 만들 수는 없다"면서 "기재부 근무시절 직원들이 투표로 뽑는다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된 제가 전주시민 누구와도

경쟁은 예산을 위해 ▲민선 8기 4년간 12조원 이상, 국비 5조원 예산시대 개박 ▲100만 전주시대 준비를 위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돈 많은 전주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국내 30대 기업 투자유치 ▲전주산업단지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처럼 탈바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치탄한 문화, 문화도 경제'를 위해서는 ▲전주문화 세계로 발돋움 ▲호남제일문 인스타그래머블하게 조성 ▲한옥마을, 전주의 미래 유산으로 재탄생 ▲전주천을 빛과 소리의 강'으로, 전주삼천을 '문화의 강'으로 탈바꿈 ▲전주에 없는 문화관광체육시설 대폭 확충 ▲동학을 미래 정점으로 승화시키고 후백제 역사를 전주의 문화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하루 일상 생활이 문화'라는 테마로 ▲청년이 행복한 전주시 ▲누구나 따뜻한 주거환경 ▲전주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구축 ▲밝은 전주, 야경이 있는 도시로 ▲전주 교육혁명 일반지로 재탄생 지원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도, 태풍·병해충 피해 벼 전량 매입

'농가 손실 최소화' 내달 17일까지... 공공비축미 물량과 별도

다.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잡정등의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 기준의 76.92%, B등급은 64.1%, C등급은 51.28% 수준이다.

피해 벼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80kg)을 비교(40

kg)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을 산정한 후, 잡정등의 등급별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 물량과 별도로 매입하고, 물량배정이나 품종제한 없이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올해 도는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등

지역별로 병충해 피해가 심각했으며, 3,486톤의 희망수요 물량을 조사했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보다 우선해 매입하며, 매입을 별도 지정해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벼는 쪽정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공비축미 40kg 단위 포대에 일속 무게 30kg, 80kg 단위 톨백에 일속 무게 600kg으로 매입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농협 RF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 참여가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